

‘신주쿠구 다문화 공생 실태 조사’ 요약판

~외국인과 일본인에게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머리말

2015년 12월 1일 현재, 신주쿠구에서는 구민 전체의 약 11%에 해당하는 약 38,000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메인 장소가 되는 새 국립 경기장이 있는 신주쿠구에는 더욱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주쿠구에서는 신주쿠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신주쿠를 방문하는 외국인 모두 안심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거나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신주쿠구의 특성으로 파악하여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신주쿠의 도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사에서는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해 2007년도에 실시한 지난 조사 이후의 연도별 변화 외에 지역의 새로운 과제나 요구를 발굴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의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추진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문에서는 주요 조사 결과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조사의 개요

■ 우송을 통한 설문 조사

외국인 구민 조사 외국인 등록원표상 구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개인 5,000명
일본인 구민 조사 주민 기본 대장상 구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개인 2,000명

◆ 설문 조사 회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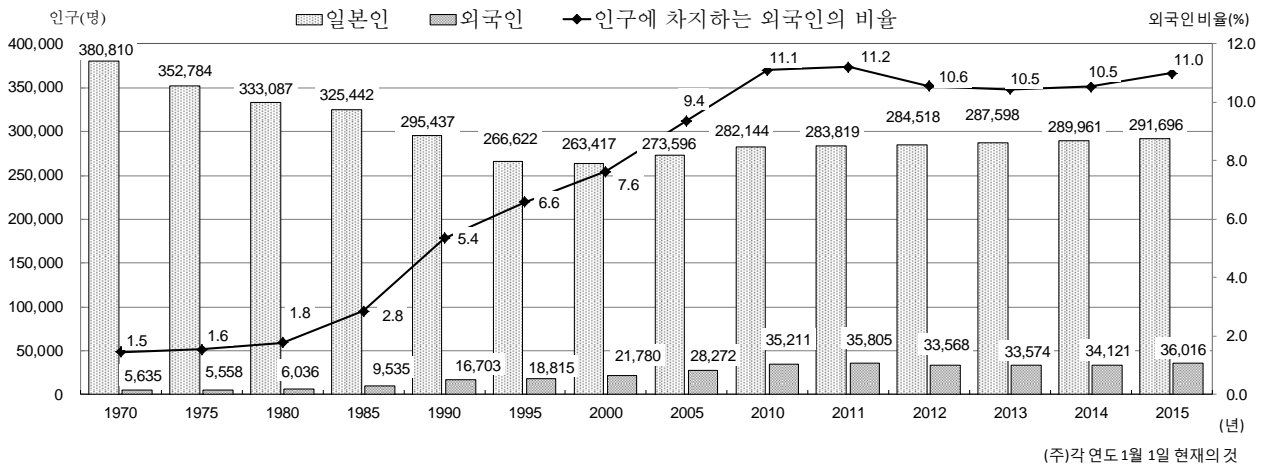
	표본 수(명)	유효 회수 수(명)	유효 회수율(%)
외국인 구민 조사	5,000	1,275	25.5
일본인 구민 조사	2,000	949	47.5

■ 청취를 통한 인터뷰 조사

외국인 구민 조사 구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40명
일본인 구민 조사 구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40명
단체 조사 다문화 공생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 20단체

신주쿠구의 개황

신주쿠구의 인구 추이



국적별 외국인 주민 인구(2015년 1월 1일 현재)

순위	국명	외국인 주민 인구
1	중국	13,536
2	한국 또는 조선	10,203
3	베트남	3,076
4	네팔	2,766
5	미얀마	1,541
6	미국	866
7	프랑스	705
8	태국	700
9	필리핀	689
10	영국	343
11	인도	247
12	캐나다	190
13	인도네시아	162
14	방글라데시	157
15	호주	152
16	러시아	147
17	독일	140
18	브라질	129
19	말레이시아	123
20	몽골	116
:	:	:
합계	113개국(무국적 제외)	37,269명

지난 조사 시(2008년)와 체류 자격별 외국인 인구의 비교

	2008년(외국인 등록상)	2015년(주민 기본 대장상)
투자·경영	543	935
기술	809	980
인문 지식·국제 업무	2,305	3,134
기업 내 전근	646	421
흥행	246	17
기능	906	1,215
단기 체류	1,542	—
유학	5,132	유학(※)
취학	3,849	12,458
가족 체류	3,851	3,979
영주자	3,719	6,260
특별 영주자	1,543	1,488
일본인 배우자 등	2,263	1,387
정주자	1,344	1,580
그 밖의 체류 자격	2,213	2,162
체류 자격 없음	945	—
합계	31,856	36,016

((주)각 연도 1월 1일 현재의 것)

※지난 조사 시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의 법 개정에 따른 체류 자격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학’, ‘취학’이 ‘유학’으로 일체화
- ‘단기 체류’, ‘체류 자격 없음’은 주민 기본 대장법의 대상 외

설문 조사 결과의 요약

I 외국인 주민 조사

1 일본 생활

(1)정주 의향(문9)

◇ 《정주 의향》은 70%에 가깝다

(2)일본 생활에서 곤란한 사항 및 불만 사항(문10)

◇ ‘언어’는 20%대 중반. 한편 ‘특별히 없다’가 20%대 중반을 넘는다

(3)일본인과의 교제(문11)

◇ 교제가 ‘있다’가 40%대 중반에 가깝다. 한편 ‘없다’가 50%대 중반

◇ 교제의 정도로는 ‘인사를 하는 정도’가 40% 중반에 가깝다

◇ 교제가 없는 이유로는 ‘이야기를 건넬 계기가 없기 때문에’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4)일상 생활에서 곤란한 경우의 상담 상대(문12)

◇ ‘지인·친구(동포)’가 60%대 중반을 넘어 가장 높으며, ‘가족·친척’이 40%대 중반에 가깝다

(5)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동료나 그룹(문13)

◇ ‘있다’가 30%대 중반. 한편 ‘없다’가 약 60%

2 일상 생활상의 문제

(1)일본인과의 분쟁 경험(문14)

◇ ‘방에서 나는 목소리·물건 소리 관련’이 10% 이상. 한편 ‘특별히 없다’가 약 70%

(2)일본인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문15)

◇ 편견 및 차별을 느낀 적이 ‘가끔 있다’가 30%대 중반, ‘별로 없다’는 30% 이상

◇ 편견 및 차별을 느끼는 것은 ‘집을 구할 때’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 편견 및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50%대 중반에 가깝다

3 언어(일본어 학습)

(1)일본어와 관련하여 곤란한 사항(문16)

◇ 일본어와 관련하여 곤란한 사항이 ‘있다’는 60%에 가깝다

◇ 곤란한 내용으로는 ‘일본어 신문이나 안내문 읽기’가 50% 미만으로 가장 높으며, ‘관공서나 병원에서 듣는 설명을 이해하기’가 40%대 중반을 넘는다

(2)일본어 학습 의향(문17)

◇ 일본어를 ‘현재 배우고 있다’가 40%대 중반을 넘으며, ‘배우고 싶다’는 30%대 중반에 가깝다

◇ 배우고 있는(배우고 싶은) 방법으로는 ‘일본어 학교’가 30%대 중반 가까이로 가장 높다

4 재해 시·긴급 시의 대응

(1)재해 시의 준비(문18)

◇ ‘자택이나 직장에서 대피할 곳을 확인하고 있다’가 40% 미만으로 가장 높으며,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준비하고 있다’가 30%대 중반을 넘는다

◇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다’의 이유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가 약 50%로 가장 높다

(2)방재 훈련의 참가 상황(문19)

◇ ‘모르겠고, 참가한 적은 없다’가 50%대 중반을 넘는다

(3)신주쿠구에 바라는 재해 대책(문20)

◇‘대피 장소의 게시 등을 다언어로 만든다’가 50% 가까이로 가장 높다

5 필요한 정보·서비스에 대해

(1)신주쿠구가 다언어로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정보로 알고 있는 것(문21)

◇‘신주쿠 생활 스타트북’이 20% 이상. 한편 ‘특별히 없다’가 약 50%

(2)신주쿠구에서 생활하는 데 알고 싶은 정보(문22)

◇‘축제·스포츠 등의 이벤트’가 30%대 중반을 넘어 가장 높으며, ‘의료 및 건강보험’과 ‘방재 및 지진’이 30%대 중반

(3)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신주쿠구에 바라는 사항(문23)

◇‘외국어를 통한 신주쿠구의 정보를 늘린다’가 약 30%로 가장 높다

6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1)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에 대해(문24)

◇‘처음 알았다’가 70%대 중반에 가깝다

(2)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활동해 보고 싶은 사항(문25)

◇‘지역의 일본인과 서로 대화하기’와 ‘부담 없이 이야기하기’가 30%대 중반 가까이로 높다

(3)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신주쿠구가 추진해야 할 사항(문26)

◇‘일본인과의 교류 모임 및 이벤트’가 40%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외국인에 대한 편견·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30%대 중반을 넘는다

(4)신주쿠구에 대한 기대(문27)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80% 미만으로 가장 높다

II 일본인 주민 조사

1 생활의 실감

(1)정주 의향(문7)

◇ 《정주 의향》은 70%대 중반을 넘는다

(2)외국인 증가의 실감(문8)

◇주변에 외국인이 《많다고 느낀다》는 60% 이상

◇외국인이 많다고 느낄 때는 ‘도로에서 외국인을 자주 본다’가 80%대 중반을 넘어 가장 높다

(3)근처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생각(문9)

◇ 《바람직하다》가 《바람직하지 않다》를 약간 웃돈다

(4)근처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점(문10)

◇ ‘생활 관습의 차이로 쓰레기 배출 방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40%대 중반을 넘어 가장 높다

(5)외국인이 생활하면서 곤란하거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문11)

◇ ‘일본어가 미흡’이 40%로 가장 많으며, ‘재해 시·긴급 시의 대응’이 30% 이상

2 일상 생활

(1)근처의 외국인과 교제하는 정도(문12)

◇현재는 ‘전혀 교제가 없다’가 40%대 중반에 가깝다

◇앞으로는 ‘인사를 하는 정도’가 20%대 중반을 넘는다

(2)외국인과 생활하는 데 중요한 사항(문13)

◇ ‘생활 관습의 상호 이해’가 50%대 중반 가까이로 가장 높다

(3)외국인과의 분쟁 경험(문14)

◇ ‘특별히 없다’가 약 60%로 가장 높지만, ‘쓰레기 배출 방법 규칙 관련’이 20% 미만, ‘방에서 나는 목소리·물건 소리 관련’이 10%대 중반에 가깝고 분쟁도 있다

3 편견·차별

(1)일본인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문15)

◇일본인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50% 이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의 30% 이상을 웃돈다

◇편견 및 차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거주지를 구할 때’가 4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편견 및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 생활 관습의 차이를 인정한다’가 약 50%로 가장 높다

4 재해 시·긴급 시의 노력

(1)신주쿠구에 바라는 재해 대책(문16)

◇ ‘대피 장소의 게시 등에 외국어를 병기한다’가 60% 이상으로 가장 높다

5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1)다문화 공생 사회라는 말의 인지도(문17)

◇ 《알고 있다》는 약 20%, ‘들은 적은 있다’는 약 40%

(2)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에 대해(문18)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를 ‘처음 알았다’는 80% 미만

(3)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사항(문19)

◇‘인사 등 서로 말을 건다’가 60% 가까이로 가장 높다

(4)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신주쿠구가 주력해야 할 사항(문20)

◇‘일본인과 외국인의 교류 모임 및 이벤트’가 약 40%로 가장 높으며, ‘일본의 문화 및 생활 정보를 외국어로 알린다’는 30%대 중반을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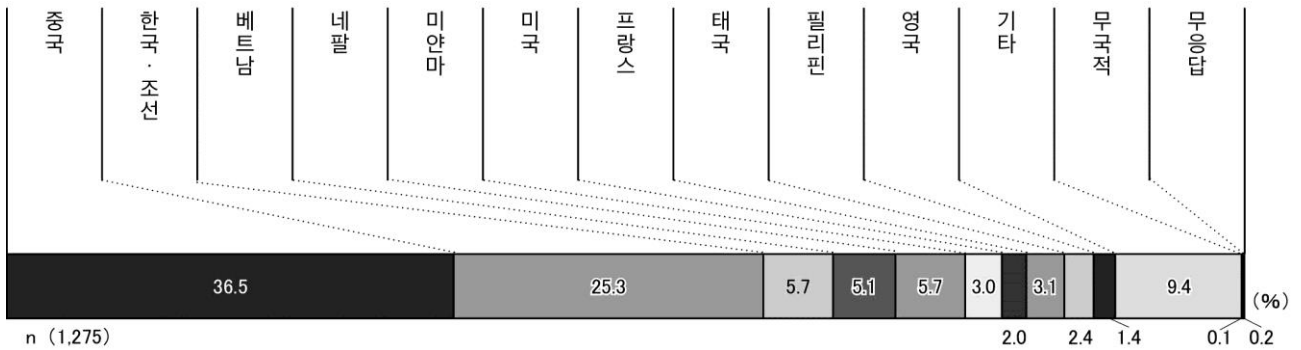
(5)신주쿠구에 대한 기대(문21)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6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응답자 속성(외국인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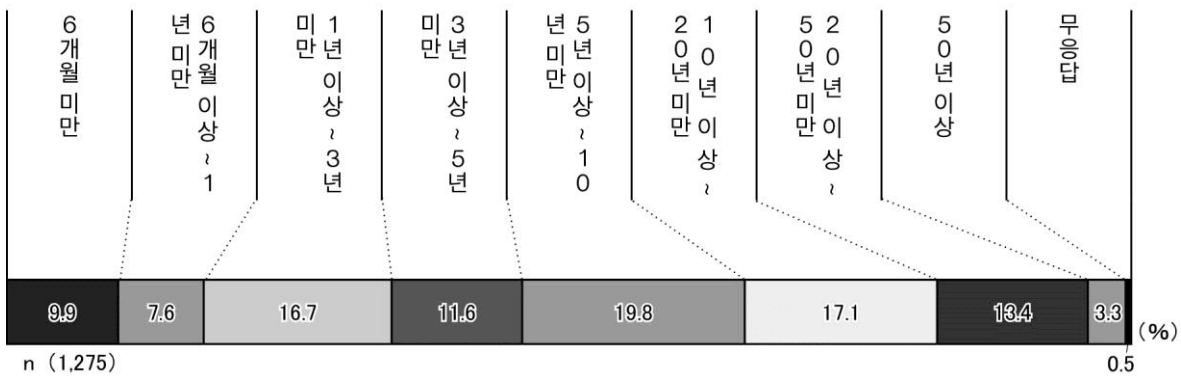
국적

‘중국’이 30%대 중반을 넘어 가장 높으며, 이어서 ‘한국·조선’이 20%대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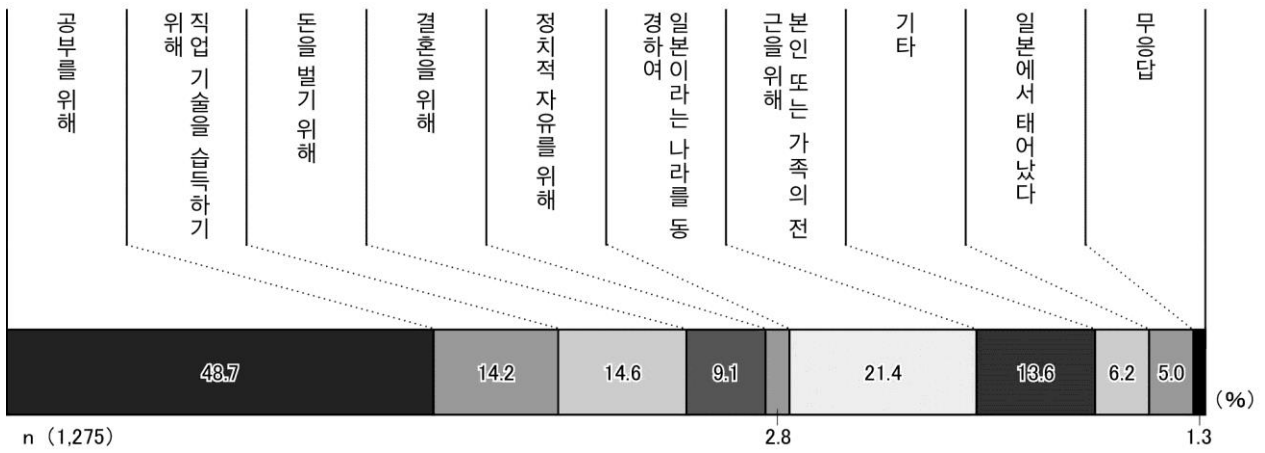
일본 체류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이 20%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과 ‘10년 이상~20년 미만’이 10%대 중반을 넘는다



일본에 온 목적

‘공부를 위해’가 50% 가까이로 가장 높다



※1 이번 조사에서 신설한 항목이다.

※2 ‘관광을 위해’는 이번에 생략

※3 ‘부모의 사정’은 이번에 생략

외국인 주민 인터뷰에서(발취)

- 신주쿠에는 외국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문화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았다.
- 일본의 생활 규범에 적응하고자 노력한 경험을 가진 외국인은 많다. 특히 모국에는 쓰레기 분리가 없어 일본에 온 당초에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고생했다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 방을 빌릴 때에 ‘외국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입주 시의 보증에 관한 제약이 엄격하여 고생한 경험이 많이 꼽혔다. 또한 계약서가 일본어만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 학교나 지역에서 일본인과 교제하고 싶은 분도 많지만, 일본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불안감을 안고 있다.
-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분이나 방재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는 분은 식량 비축 등 재해에 대비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 한편으로 일본에서 체류한 경력이 짧은 분이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온 분은 재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유학생은 일본에서 취직하거나 모국에서 일본과 관련된 직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진 분이 많다. 또한 일본에서 자란 외국에 뿌리를 둔 청년도 모국과 일본을 오가거나 세계를 위해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인 주민 인터뷰에서(발취)

- 외국인이 일본의 생활 규범을 확실히 이해할 필요성이 많이 지적되었지만, 신주쿠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유동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주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의견이 많이 꼽혔다.
- 문화 및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려면 일본인과 외국인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재해는 일본인, 외국인 관계 없이 모든 주민이 대비해야 하는 공통 주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육아 및 교육을 받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국제 감각 양성과 어학에 흥미를 가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이 꼽혔다.

단체 인터뷰에서(발취)

- 육아 방법 및 이웃 교제 등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새로운 법 제도 및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정보를 외국인도 알 수 있는 형태로 제공했으면 한다.
- 학교 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한 교육, 육아,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지원을 바란다.

신주쿠구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회의의 제언

신주쿠구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회의

신주쿠구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회의는 신주쿠구의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을 종합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구청장의 부속 기관이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제 1기 회의에서는 ‘외국에 뿌리를 둔 아이들의 교육 환경 향상’, ‘재해 시 외국인 지원 장치 마련’이라는 2가지 과제에 대해 심의하고 구청장에게 답신을 보냈다.

2014년 9월에 구청장이 위촉한 제2기 회의의 현 위원 31명은 총 8번의 회의에서 본 조사와 관련된 조사 항목 검토 및 조사 결과 분석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신주쿠구의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에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나 지역 내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한편으로, 편견 및 차별 의식 존재, 지역 내 교류의 기회가 없다는 점, 신주쿠구의 행정 서비스 인지도가 낮다는 점 등 많은 과제도 부각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제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주쿠구의 노력과 함께 지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공생의 당사자인 우리 ‘지역 주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법 제도의 정비 등에 대해 국가 및 도쿄도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다.

위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적 및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생 도시’의 실현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1 신주쿠구에 요구하는 사항

(1) ‘언어’ 문제에 대한 지원

① 일본어 학습 지원 사업의 확충

신주쿠구 일본어 교실 및 신주쿠 일본어 네트워크 등 기존의 일본어 학습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 수강자를 늘린다. 또한 어린이 및 취업자 등 학습자의 상황에 따른 지원 체제(내용·장소·시간)를 검토하여 가능한 한 폭넓게 대응한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NPO 단체나 시민 단체와도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으로 연결한다.

② 의료 및 재해 시 등의 언어 지원

의료 및 재해 시 등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의 언어 지원 체제를 정비한다. 통역사 배치 및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회화장’ 등의 도구 준비 외에 다양한 안내의 다언어화 및 알기 쉬운 일본어를 사용할 것.

(2)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① SNS(트위터·페이스북)를 통한 정보 발신

SNS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 외국인은 많다. SNS가 가진 네트워크성에 주목하여 홍보지나 홈페이지와 연동시킨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

② 외국인의 정보 요구 파악

‘의료’, ‘방재’, ‘세금’ 등의 정보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결과는 그러한 제도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이 넘버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정보 요구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록 알기 쉬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

③ 대응 언어의 확대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외에 국적별 인구의 동태 및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대응 언어를 확대한다. 또한 일본어로 제공할 때는 일본어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에 대해 평이한 표현 등을 이용한 알기 쉬운 일본어로 배려할 것.

(3) 신주쿠 다문화 공생 플라자의 운영 방법 재검토

① 다양한 주체와의 협동을 통한 시설 운영

많은 사람들이 플라자를 거점으로 주체적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NPO 단체, 외국인 커뮤니티 단체, 시민 단체, 대학 등 연구 기관, 유학생 등과의 협동을 통한 시설 운영 체제를 정비한다.

② 학생 인턴의 활용

신주쿠구에는 교육 기간이 다수 있으므로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인턴을 수용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플라자가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그들의 힘을 활용한다.

③ 이벤트 등을 통한 인지도 상승

다문화 공생 및 국제 교류에 대한 관심의 유무를 불문하고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등 플라자의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특히 플라자의 인지도가 낮았던 국적에 대응한 언어의 전단지·팸플릿 등을 작성하여 일본어 학교를 비롯해 그 국적의 외국인 주민이 모이는 장소 등에 비치할 것.

④ 시설 설치 장소에 대해

현재의 설치 장소(카부키초 2-44-1 하이피아 11층)는 이용자가 방문하기 쉬운 환경이 아니다. 빌딩의 11층이라는 입지 외에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이용도 다양한 제약이 있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거점 설치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설치 장소의 재검토를 바란다.

(4) 편견 및 차별의 해소를 위해

① 부동산 업체·임대주와의 연계

‘집(거주지)을 구할 때’에 편견 및 차별을 느낀 외국인이 많았던 것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거절당한 경험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외국인을 위해 주택 임대와 관련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지만, 신주쿠구와 부동산 업체·임대주가 연계하여 외국인이 보다 방을 빌리기 쉬운 환경의 구축이 요구된다.

② 다문화 공생 의식의 보급 계발

다문화 공생 의식과 편견 및 차별 의식은 큰 관련이 있다. 학교 및 지역 이벤트 등을 통해 폭넓은 세대를 위한 다문화 공생 의식의 보급 계발에 노력하여 편견 및 차별의 해소를 연결한다.

(5) 분쟁 방지를 위해

①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전단지·팸플릿 작성

쓰레기 분리 방법은 국가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자치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 신주쿠구에서는 쓰레기 배출 방법에 관한 다언어 전단지·팸플릿

을 작성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신주쿠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왜 이렇게 분리할까’ 등의 이유가 설명된 전단지·팸플릿을 작성하여 주민 등록 창구에서 배포하는 등 신주쿠구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지시킬 것.

② 목소리·물건 소리 등 거주지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

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건물의 구조 등으로 목소리·물건 소리 등 거주지에 관한 분쟁은 일본인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나 편견으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 신주쿠구가 부동산 업체·임대주와 연계하여 이와 같은 거주지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정비할 것.

(6) 마을회·자치회 등에 대한 지원

① 마을회·자치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마을회·자치회 등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및 의의 등을 정리한 다언어 전단지·팸플릿을 작성하여 외국인에게 널리 주지시킨다.

② 지역 활동에 대한 외국인 참가 촉진

마을회·자치회 등이 실시하는 지역 활동에 관한 전단지의 다언어화 및 통역사 준비 등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지역 활동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2 우리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사항

(1)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일본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의식을 함께 가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재해 시에는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 재해자로, 국적에 관계없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평소에 함께 땀을 흘리며 서로 지혜를 발휘하여 만일의 사태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해 나갔으면 한다.

(2)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에는 생활 관습 및 문화 등의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3 국가 및 도쿄도에 요구하는 사항

고도의 인재 수용 개시 및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 도쿄 대회 개최 등 중장기적인 외국인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및 도쿄도는 어떤 장래상을 그리는 걸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제도의 아래에서는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조속한 법 제도의 정비 및 전문 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 환경 정비 등의 과제에 대해 기대하는 사항도 많다.

신주쿠구 등의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독자적인 다문화 공생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을 참고하는 동시에 외국인과 일본인이라는 2항 대립이 아니라 함께 지역을 구성하는 일원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했으면 한다.

4 맺음말

본 제언에서는 신주쿠구에는 일본어 학습 지원, 정보 발신, 플라자 운영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과, 국가 및 도쿄도에는 다문화 공생과 관련된 전문 기관의 설치나 법 정비가 요구된다는 것을 제언했다. 또한 신주쿠구 다문화 공생 도시 조성 회의의 위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역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 결의를 표명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취업 및 빈곤, 난민들에 관한 과제 외에 응답을 얻지 못한 항목 중에도 많은 과제가 묻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1기 회의에서 심의한 ‘외국에 뿌리를 둔 아이들의 교육 환경 향상’ 및 ‘재해 시 외국인 지원 장치 마련’의 2가지 과제도 신주쿠구가 제언의 구체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면 한다. 이러한 과제 하나 하나에 착실하게 노력하면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다문화 공생 도시’에 가까워질 것이다.

다음 번 조사에서는 신주쿠구가 보다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다양함을 무기로 하는 ‘다문화 공생 도시’로 발전해 있기를 기대한다.

신주쿠구에서는 향후 더욱 활발한 교류의 장 조성 및 다언어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서로의 문화 및 관습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발행 신주쿠구 지역문화부 다문화 공생추진과
우160-8484 신주쿠구 카부키초 1-4-1
전화 03(5273)3504